

북한의 대외 경제지원 실태 분석

조현식(북한문제전문가)

1. 서 언

북한은 1969년 9월 신생중립국으로 구성된 「비동맹회의」의 결성으로 제3세계의 반제·반식민 운동 세력이 부상하자 이에 편승하여, 1970년대부터 국제적 지지세력확대 및 한국의 고립화 시도 등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와 이들 지역에 대한 침투를 목적으로 반미공동투쟁을 표방하면서 1980년대 들어 대외지원을 본격화하여 주로 저개발 및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64개국에 각종 건설공사 및 물자지원과 기술자, 전문요원 파견 등 대외적으로 경제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자체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지위향상과 친북세력화 유도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저개발 국가들에 대하여 출혈원조를 계속해 왔으며, 또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유류, 식량 등의 부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자, 식량, 유류 등 원자재 획득의 차원에서 중동 및 동남아 국가 등 자원 부국에 대한 경제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기간중 경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64개국에 대한 국가별 지원 내용은 세부적인 자료 수집제한 및 부족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필자의 30여년 동안의 북한경제관련 연구를 하면서 그 동안 각종 내외신 보도를 비롯하여 북한선전내용, 기타 관련자료를 검토·정리·종합하였다.

최근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기존의 제3세계와 동구권 중심의 '진영외교'에서 경제적 실리 중심의 대서방 국가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제적 지지세력확대 및 한국의 고립화시도 등을 위하여 향후에도 일부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소극적이거나 경제 및 기술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원조보다는 인력지원에 중점을 두어 식량, 유류 등 필요한 원자재를 교환하는 차원에서의 경제협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난 1970년대부터 북한의 대외 경제지원추세, 대상국, 지원내용, 형태, 규모, 특징 등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의 대외 관계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II. 지원목적

북한이 지속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면서 제3세계에 대한 경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제적 지지확대 강화를 기도하여 왔으며, 자체의 경제난을 은닉하고 경제력을 과장 선전하기 위해 자체의 수요에도 부족한 물자들을 정책적으로 출혈 원조함으로써 친북 세력화에 주력하여 왔다.

북한의 대외 경제지원 목적으로는 첫째, 북한의 선전 및 국제적 지위향상을 기도하며, 특히 구소련 붕괴이전까지는 중국과 소련의 외교전략 노선에 편승, 소위 대리원조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대중·소 경제 및 군사원조 수원 및 외화획득 등 실리추구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지원 대상국을 친중·소권에서 저개발,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한 친서방권으로 확대하여 남북한 동시수교 및 친북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제지원을 통해 쌍방간 무역확대 및 경제교류 증진과 수교를 기도하고, 남북한 동시수교에 대해서는 피지원국의 경쟁적 수원욕구를 유발시켜 한국의 경제지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 한국과 단교 또는 외교동결까지 유도하여 친북 국가세력으로 고착토록 하며, '비동맹 정상회의' 소요경비지원 및 '비동맹 아프리카 기금'에 시멘트, 철강 등 현물을 지원함으로써 제3세계 세력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Ⅲ. 지원대상국

현재까지 북한이 각종 경제지원을 실시한 대상국은 대부분 64개국으로서 대부분 저개발국 및 자원부국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많은 29개국으로서 4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아시아 12개국으로서 19%, 중·남미 11개국으로서 17%, 중동 7개국으로서 11%, 구주 5개국으로서 8% 등이다.(표 1) 참조

〈표 1〉 지역별 지원 대상국 현황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중 동	구 주	계
29개국	12	11	7	5	64
45%	19%	17%	11%	8%	100%

성향별로는 대부분 국가들이 과거에 친중·소 좌경 중립국가이며, 그 중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 57개국이고 북한 단독수교국이 시리아, 쿠바 등 2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피지원국의 경쟁적 수원욕구 유발을 주목적으로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점차 친서방권으로 확대추세를 보여 한국 단독수교국인 미얀마, 쿠웨이트, 브라질, 에콰도르, 캐나다 등 5개국에도 경제지원 및 협력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 참조

〈표 2〉 성향별 지원 대상국 현황

남북한 동시수교국	북한 단독수교국	한국 단독수교국	계
57개국	2	5	64
89%	3%	8%	100%

IV. 주요 지원내용 실태

북한의 주요 대외경제지원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물자지원으로서 트랙터, 이앙기, 양수기 등 농기계와 철근, 시멘트 등 공사용 자재와 비료, 쌀, 밀가루, 옥수수 등 곡물을 포함하며, 둘째, 각종 토목건설공사지원으로서 관개공사, 발전소, 체육관, 주택건설 등이며, 셋째, 토목, 건축 등 각종 건설공사 및 벌목, 농업분야 등에 대한 기술자와 전문요원, 노동자 파견으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물자 지원내용을 보면, 먼저 쌀, 밀가루, 옥수수 등 곡물지원에서 북한은 1973~87년간 7개국에 2만 2,700톤 이상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1973년도에 세네갈에 소맥 1,000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1977~79년간 적도기네에 식량지원, 1981년에 탄자니아에 옥수수 7,000톤 제공, 1983년 우간다에 난민용 식량 및 니카라과에 강냉이 2,000톤 선물, 그리고 1984~85년간 이디오피아에 한발 난민구호용 밀가루·옥수수 등 2,000톤을 기증하였으며, 1987년에는 마다가스카르에 쌀 1만톤을 선물로 제공하는 등 주로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빈국에 대해 식량원조를 실시하였다.¹⁾

수산물 지원에서 북한은 1981년 부르키나파소에 동태 2,000톤을 지원하였고, 1982~84년간에는 이란에 동태 2만 6,500톤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철근 및 강재 등의 지원에서 북한은 1982~86년간 니카라과, 세이셸, 잠비아, 부르키나파소, 몰타, 중앙아 등 6개국에 건축용 철근, 강재, 철강 등 총 11만 8,600여톤을 지원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1982~87년간 니카라과에 건축용 철강재 3,160여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1983년 세이셸에 250톤, 1984년 잠비아에 강재 11만 5,000톤, 부르키나파소에 7.5톤, 1985년 중앙아프리카에 철근 180톤 등을 지원하

1) 이 글에서 사용한 용어 중 '선물', '기증' 등의 용어는 북한이 각각의 경제지원에 대하여 사용한 명칭으로서 우선 '선물'은 김일성 및 김정일의 이름을 이용한 지원이며, '기증'은 양국간의 공식적인 기증식에서 '기증서'를 교환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였으며, 또한 몰타에는 수량 미상의 철강재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지원에서 북한은 1976~87년간 시에라레온, 세이셸, 중앙아, 가나, 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몰타, 니카라과 등 8개국에 시멘트 총 5만 5,600여톤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1976년 시에라레온에 시멘트 1,600톤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1982~83년간 세이셸에 5만 1,000톤, 1983년 중앙아프리카에 2,500톤, 가나에 400톤, 리비아에 수량미상의 시멘트를 지원하였으며, 1984년에는 부르키나파소에 170톤을, 그리고 1984년~87년간 몰타 및 니카라과에도 수량미상의 시멘트를 기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료지원은 1982~84년간 총 14만 7,000여톤을 제공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1982~83년간 세이셸에 14만 1,000톤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1983년 니카라과에 1,000톤, 1983~84년간 몰타에 5,000톤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트랙터, 벼이앙기, 양수기 등 농업용 기계지원은 1972~90년간 시리아, 몰타, 시에라레온, 그레나다, 중앙아프리카, 세이셸, 가이아나, 토고, 우간다, 파키스탄, 이란, 적도기네, 기네, 니카라과, 세네갈 등 15개국에 트랙터 360대, 벼이앙기 250대 이상, 양수기 1,500대 이상, 기타 농기계 1,020여대 등 총 3,130여대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 1970년대에는 시리아에 트랙터 100대를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시에라레온에는 1972년 트랙터 20대를 지원하였고, 적도기네에는 1977~79년간 수미상의 농기계를, 파키스탄에는 1976~77년도에 벼이앙기 250대를, 몰타에는 1977년 트랙터 20대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는 이란에 1982년 양수기 1,500대 및 농기계 1,000대를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중앙아프리카에 1983~85년도에 트랙터 60대 및 양수기(수미상)를 무상 지원하였으며, 니카라과에 1982년 농기계 20대 무상지원을, 그레나다에 1983년 트랙터 30대 및 농기계를, 토고에는 1983년 수미상의 트랙터, 벼이앙기 및 쟁기, 제초기 등 원조품 전달하였으며, 가이아나에는 1984년 트랙터 100대를, 세이셸에는 1983년도에 트랙터 10대를 기증하였고, 기네에는 1981~84년간 수미상의 농기계를, 우간다에는 1990년에

트랙터 20대를 제공하는 한편, 페루에 1987년 트랙터 수미상 공급제의를 하는 등 농기계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재봉틀, 학용품, 뺏지 등 물품지원은 1972~86년간 시에라레온, 중앙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자이레, 니카라과, 세이셸 등 6개국에 재봉틀 200대, 뺏지 1만 5,000개, 라디오, 카메라 및 학용품(노트 3,100볼 상당) 등을 제공 하였는데, 시에라레온에는 1972년 재봉틀 200대, 1981년 OAU뺏지 5,000개 및 1985년 '모모'대통령 뺏지 5,000개를 제조 기증하였고, 자이레에도 1983년 "모부투"대통령 뺏지 5,000개 기증, 에디오피아에는 1981년 3,100볼 상당의 노트 제공, 세이셸에는 1984~86년 내용미상의 원조물자를 전달하였으며, 니카라과에는 1982년 탁상볼반(소형 공작기계) 2대를, 중앙아프리카에는 1981년 라디오 3대, 카메라 1대 등을 기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각종 물자지원 내용 (1970~98)

품 목	수 량 (톤)	대 상 국
쌀, 밀가루, 옥수수	2만2,700	세네갈, 적도기네, 탄자니아 등 7개국
동 태	2만8,000	이란, 부르키나파소 등 2개국
철 근, 강 재	11만8,600	니카라과, 세이셸, 잠비아 등 6개국
시 멘 트	5만5,600	시에라레온, 세이셸, 중앙아프리카 등 8개국
비 료	14만7,000	세이셸, 니카라과, 몰타 등 3개국
트랙터, 이앙기, 양수기, 기타 농기계	3,130대	시리아, 몰타, 시에라레온 등 15개국
재봉틀, 학용품, 카메라, 뺏지	· 재봉틀 200대 · 노트 3,100볼 · 뺏지 1만5천개	시에라레온, 중앙아프리카, 자이레 등 6개국
계	· 37만1,900톤 · 3,330대 · 뺏지 1.5만개 · 노트 3,100볼	23개국

북한이 지원한 각종건설공사 지원²⁾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주석제련공장, 주석광산, 골재채취공장 등 광산관련 공장 건설지원에서 북한은 1982~98년간 미얀마, 라오스, 우간다 등 3개국에 6개 공장 건설을 지원하였는데, 1982년 3월 구버마에 연산능력 2,000톤의 주석제련공장 건설(360만달러 규모)을 '조업'한 것을 비롯하여, 1994~95년간 라오스에 연광산·주석 광산 개발 지원 하였고(660만달러), 1989~98년간 우간다에 구리광산개발 및 주물직장을 '건설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력발전소 건설지원에서 북한은 1983~98년간 가이아나, 에디오피아, 시에라레온, 우간다, 쿠바, 파키스탄 등 6개국에 발전소 9개의 건설을 지원하였는데, 1983~84년간 가이아나에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10만 불 지원 및 건설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1984년 9월 에디오피아에 수력발전소 확장공사(15만→30만KW)에 6,000만불 '무이자 차관' 제공, 1990. 5월 우간다에 수력발전소 건설(1.5만~10만KW 추정)을 지원한 후 1990. 10월 쿠바와 수력건설지원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0. 12월 시에라레온에 수력발전소 건설을 착공하였으며(600KW), 파키스탄에는 1996. 3월 수력발전소(1,600KW)를 '준공'한 것을 비롯하여 1998. 11월 또 다른 수력발전소(1,600KW) 건설공사에 65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공구, 성냥, 연필공장 등 경공업 분야 제조공장 건설 지원은 1976~90년간 몰타, 모잠비크, 적도기네, 가이아나, 쿠바, 나이지리아, 시에라레온, 콩고, 베냉 등 9개국에 9개 공장 건설을 지원하였는데, 먼저 1976년 1월 몰타에 공구공장 건설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1978년 8월 모잠비크에 성냥·연필공장 건설, 1983년 3월 콩고에 성냥공장 건설, 1984년 적도기네에 소형 목재어선 제작소 건설을 지원하였으며, 1985년

2) 북한이 지원한 각종 건설공사는 북한이 기술, 인력은 물론 자금까지도 제공하여 완성한 것과 양국의 합작형태로 건설된 것이 있으며, 또한 완공 후 공장의 운영형태도 완공 즉시 기증(이 글에서는 '이관'이라는 표현을 사용)된 것이 있는가 하면, 양국간의 합작 운영형태, 또는 완공후 몇 년간 북한 단독 운영 또는 양국 합작 운영 후 기증 등 여러 가지 운영 형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확보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건설 지원 사실만을 기술하는 한편 이 글에 열거된 지원의 형태는 확보된 자료에 기술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1월에는 시에라레온과 프라스틱 제품 합작공장 건설을 합의하는 한편, 1985년 12월에는 베냉에 인쇄소 건설을, 1988년 8월 나이지리아에 제약회사 합작건설, 1984년 12월 가이아나에 유지공장 건설 그리고 1990년 8월에는 쿠바에 나사공장 건설을 지원한 바 있다.

저수지, 수로공사, 농장건설, 정미소 건설 등 농업분야의 건설공사 지원은 1978~97년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 케냐, 파키스탄, 마다가스카르, 가이아나 등 15개국에 저수지 4개소, 수로공사 5개소, 농장건설 8개소, 정미소 2개소, 강냉이 가공공장, 과일 가공공장, 양어장, 염전건설, 농기계 수리공장, 양수기 공장 각 1개소 등 농업분야 각종 건설공사 25개소 이상을 지원하였는데, 1978년 8월 나이지리아에 농경지 확장 기술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1984년 4월 옥수수·야채 연간 420톤 생산능력의 농산물 합작생산 농장 건설(600만달러 상당)을 지원하고, 1985년 5월 5,000ha규모의 농장건설 위한 차관(8,000만달러 상당) 제공을 약속한 바 있으며, 1981년 3월 마다가스카르에 송어 양어장 건설지원, '81년 11월 모잠비크에 염전시설 공사지원 및 1984년 10월 관개수리 시설 건설기증하였으며, 가이아나에는 1981년 5월 관개공사(580정보 규모)를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12월 정미공장 건설지원, 1983년 2월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을 지원하였다. 또한 1981년 5월 케냐에 관개공사 지원, 1983년 12월에는 기네에 김일성 농업과학연구소를 설치하여 벼 육종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지원하였고, 1983년 4월 그레나다에 과일 가공공장 건설(연 500톤 규모)을 지원하였으며, 동년 5월에는 파키스탄에 채소재배 합작회사를 설립(70만달러 규모)하였고, 1984년 1월 부르키나파소에 시범농장건설에 합의하고(3~5ha) 1997년 12월에는 소형저수지를 건설하여 제공하였다. 1985년에는 중앙아프리카에 시범농장건설(20ha)을 지원하였고, 동년 5월 탄자니아에 김일성 명의의 농업과학 연구소를 설치하는 한편 1987년 7월 관개건설 협조에 합의하였으며, 1985년 6월 에티오피아에 수로공사(9.5km)를 건설하여 제공하고 1986년 8월 관개시설 지원 및 1987년 9월 양수기 공장을 준공 지원하였다. 1987년 7월에는 르완다에 강냉이 가공공장을 준공(연간 5,000톤 가공능력)하고, 1987년 9월에는 시에라레온과 저수지 공사지원을 합의하

였으며, 1989년 5월 잠비아에 양수장 통수식 및 정미공장 건설 지원, 1991. 12월 시리아에 관개사업(1만 정보) 지원을 합의하는 등 농업분야의 저개발국인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각종 농업부문 건설공사 지원활동이 적극 추진되었다.

주택, 회관, 체육관, 훈련원, 기념관 및 기념탑,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기반조성 분야에 대한 건설지원은 1975~99년간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쿠웨이트, 그레나다 등 23개국에 주택 2,480여 세대, 회관·극장 11개소, 체육관 및 경기장 4개소, 훈련원 3개소, 학교·병원·도서관·박물관 등 5개소, 기념관 및 기념탑 7개소, 도로건설 1개소 등을 건설 지원하였는데, 지원내용은 1975년 3월 세네갈에 시민회관 건립 및 1990년 3월 민속박물관 건설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1978년 4월에는 시에라레온에 시민홀 건설 지원, 1981년 10월 가이아나에 영어연수원 신설 지원, 1982년 3월 리비아에 학교, 주택, 체육시설, 하수도 공사 건설 지원 및 1983년 4월 그레나다에 1,500명 수용규모의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토고에는 1982년 9월 국민회의당 간부 훈련원 건설 지원(300만달러 규모)과 1983년 6월 인민연합당 훈련원 및 '에아데마' 대통령 동상 건립을 지원하는 한편, 1983년 4월 말리에 문화회관 건립지원(공사비 175만달러 규모), 동년 12월 부르키나파소에 1,600석 규모의 공연장 건설과 1984년 1월 혁명기념탑(높이 19.5m) 2개소 및 박물관 2개소 건립 지원, 1983년 6월 기네에 국제회의장 건설제공, 1984년 7월 르완다에 병원건설과 부룬디에 진보당사 건립 및 1986년 예술회관 건립을 약속하였다. 1984년 9월에는 북예멘에 국제경기장 건설 기증하고, 에디오피아에 영웅기념탑을 제막하였으며, 1985년 1월 중앙아프리카에 국회의사당 건립지원(시멘트 35만달러 상당 및 철근 등), 1987년 6월 가나에 도서관 개관, 동년 4월 및 1991년 5월 탄자니아에 경기장 및 집권당 회관 건립 지원(200만달러 자재)을 한 바 있고, 1987년 6월 상투메프린시페에 소년회관을 건립하였으며, 이집트에는 1989년 11월 및 1998년 10월 대규모 10월전쟁기념관 건립기증 및 호텔, 빌라건설 공사지원, 1992년 3월 역대대통령 동상 건립, 1993년 11월 군사박물관 건립 등을 지원하였다. 1991년 1월 베냉에 문화회관 건립, 동년 8월 쿠바에 김정일 명의로 된

친선분수대 준공 기증, 1994년 10월~1998년 2월 현재 말레이시아에 유원지, 도로건설 등의 공사를 지원하였으며, 1997년 8월에는 나이제리아에 스포츠 단지 건설계약을 수주하고(360만달러 상당), 그리고 1999년 4월 현재 쿠웨이트에 주택 2,480여 세대 건설공사를 지원하고 있다.(표 4) 참조.

북한은 상기 지원 외에도 건설, 농업개발, 재해구호 등을 위하여 현금으로 차관 또는 무상원조를 제공한 바 있는데, 1974~92년간 캄보디아, 이란, 에티오피아, 나이제리아, 가이아나, 니카라과 등 10개국에 13건 이상 약 5억 3,000만달러 규모의 차관 또는 무상원조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내용은 1974~92년간 캄보디아의 시아누크에게 현금 26만달러를 무상제공한 바 있으며, 니카라과에는 1982년 2월 재해구조비 3만달러 제공 및 1983년 10월 3년 기한의 차관 3,000만달러 제공에 합의하였고, 1984년 4월에는 나이제리아에 6,000만달러 무이자 차관 및 1985년 5월 800만달러 차관을 약속하였다. 또한 1984년 케냐에 관개수로 공사용 차관 23.5만달러, 동년 6월 가이아나에 기술·경제분야 차관 3,000만달러, 동년 1월 에티오피아에 2억달러 규모의 7년 거치 7년 상환조건의 경제·기술 차관협정을 체결하고, 동년 9월에는 6,000만달러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였다. 1986년 8월 짐바브웨에 비동맹 정상회의 소요 경비 중 50만달러를 지원하였으며, 1989년 10월에는 세네갈의 농지개발에 182만달러를 지원하였고, 1990년 6월 이란의 지진 피해시 100만달러의 구호금을 지원하는 한편, 1995년 9월 방글라데시의 골재채취 공장건설을 위한 1.2억달러의 장기 차관 제공 협정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4〉 각종 건설공사 지원내용(1974~98)

구 분	규 모	대 상 국
제련, 광산, 골재채취 등 광산관련공장건설	6개공장	미얀마, 라오스, 우간다 등 3개국
수력발전소 건설	9 개 소	가이아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6개국
프라스틱, 공구, 성냥, 연필공장 등 경공업 공장 건설	9 개 소	몰타, 모잠비크, 쿠바 등 9개국
저수지, 수로, 농장, 정미소 건설 등 농업분야 건설	25 건	나이지리아, 케냐, 파키스탄 등 15개국
주택, 회관, 체육관, 기념관,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	· 주택: 2,480여세대 · 기타: 31건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쿠웨이트 등 23개국
기타 건설분야 차관/원조	5억 2,984.5만불	캄보디아, 이란, 방글라데시 등 10개국
계	· 공장·발전소: 24개 · 농업·사회건설: 56건 · 주택: 2,480세대 · 현금: 5.3억불	41개국

※ 1991년 3월 북한방송은 중동, 아프리카 등 30여개국에 각종 산업시설 건설 지원 보도

북한이 1978년부터 현재까지 광산, 농업, 토목, 건설, 의료분야 등 각종 분야에 기술자, 전문요원 및 근로자들을 해외에 파견 지원한 실적은 모두 38개국에 26,600여명으로서 그 중 별목공이 가장 많은 12,000여명 약 45%이며, 그 다음이 건설분야로서 9,000여명 34%이고, 농업부문 4,100여명 16%, 그리고 의료부문, 광산부문, 발전소 건설부문 순으로 되어 있다.

먼저 별목공 파견은 구소련과 1967년 3월 체결한 「조·소 채벌협정」에

의거 1967년부터 시베리아의 하바로프스크 등에 2만명을 벌목 및 건설분야 등에 파견하였으며, 벌목공의 경우 현지에서의 연간 총 벌채량의 40%를 배당받아 원목·목재 등을 북한으로 도입해 왔으나, 1991년 8월 구소련 붕괴 및 러시아 정권 수립이후 러시아의 전반적인 벌채량 축소로 인하여 북한 벌목공이 한때 약 12,000명 수준까지 감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산분야 인력파견은 모두 3개국에 576명으로서 1987~88년간 에티오피아에 갈탄 탐사기술자 3명을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199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골재 채취공장건설에 굴착기술자 등 273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1999년 5~6월간 몽고에 광산노동자 200~300명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분야 인력파견은 1979년 3월~99년 1월간 모두 18개국에 4,100여명으로서 1979년 3월 나이지리아에 수리전문가 20명을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탄자니아에 1981년 관개기술자 105명 파견, 1985년 3월 옥수수 재배기술자 파견을, 그리고 모잠비크에는 1981년 3월 수산분야 요원 60명과 1989년 8월 농업기술자 39명을 파견한 바 있다. 또한 앙골라에 1981년 10월 농부 1,500명을 파견 체류 중에 있고, 가이아나에는 1981년 12월 농업기술자 1,500명 파견 및 1984년 12월 역시 농업기술자 150명이 체류 중에 있었으며, 1982년 11월 가나에 시험농장 전문가 20명 파견, 1983년 2월 기니비사우에 농업기술요원 등 350여명을 파견하였고, 1983년 3월에는 몰타에 농업기술자 40여명 체류, 1983년 5월 세이셸에 농업 및 양어기술자 파견, 동년 10월 그레나다에 농업기술자 5명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는 1983년 11월 관개전문가 70명 파견을 비롯하여, 1985년 6월 농업기술자 29명을, 1999년 1월에는 농업 및 광업분야 인력 60명이 진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3~85년간 중앙아프리카에 농업기술자 8명 파견, 1986년 8월 브라질에 트랙터 운전수 2명 파견, 1991년 12월 시리아에 관개사업 기술자 파견, 1992년 6~11월간 태국에 양잠 및 광업분야 기술자 등 20여명이 활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년 9월 세네갈에 농지개간사업 기술자 120명 파견, 1993~95년간 라오스에 면화재배

전문가 30여명과 목장사육사 20여명을 파견한 바 있고, 1995년 9월에는 캄보디아에 벼, 고무농장 재배 기술자 및 노동자를 파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택, 공장, 도로, 호텔 등 각종 건설공사 분야 인력파견은 1978~99년 5월간 7개국에 9,000여명으로서, 북예멘에 1978~83년간 도로포장 공사에 근로자 150명을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리비아에는 1981년 5월 건설기능공 1,000명, 1982년 3월 주택 및 학교 건설근로자 2,700명 진출, 1984년 건설인력 1,300명이 체류한 이래 1999년 5월 현재 건설요원 1,300여명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3년 3월 몰타에 건설기술자 6명 파견활동, 1985년 5월 벽돌·기와공장 기술자 5명을 우간다에 파견하였고, 쿠웨이트에는 1995년 8월 배관공·용접공 등 건설기술자 150명을 파견한 이래 1999년 4월 현재 주택건설 공사에 건설인력 2,150여명이 체류 중에 있다. 또한 1994년 10월~1998년 2월간 말레이시아의 유원지·도로건설 공사에 인력 150여명이 종사 중에 있고, 1998년 10월 이집트의 호텔, 빌라 등 건설공사에 기술·설계기술자 등 110~120명의 인력이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분야 인력 파견은 1981~98년 11월간 8개국에 달하고 있으나 인원수는 자료부족으로 20여명밖에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1981년 에티오피아에 수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차 2년간 기술자 6명을 파견한 이래, 1984년 9월 기베강 수력발전소 확장공사에 기술자를 파견한 바 있으며, 1982년 5~7월간 네팔에도 수력발전소 건설 기술조사단 7명을 2개월간 파견하였고, 1984년 6월 가이아나에 수력건설기술자(수미상)를 파견한 바 있으며, 1987년 4월에는 앙골라에도 수력건설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또한 1990년 5월 우간다에 수력발전소 건설 기능공을 파견하고, 동년 12월 시에라레온에 수력건설 기술자 파견을, 1995년 2월 페루에 수력건설 기술자를 파견하였으며, 파키스탄에 1996년 3월 수력발전소 운영요원 2명과 1998년 11월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기술자 6명을 파견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의료요원, 태권도 사범, 집단체조 코치, 경제고문 등 분야의 인력 진출은 1981년 5월 이후 모두 9개국에 8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

제는 인원수가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그 이상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1981년 5월 최초로 리비아에 간호원 500명을 파견한 이후 1990년 9월 의료요원 258명이 체류하고 있고, 1986년 1월 세네갈에 집단체조 코치 파견, 1987년 니카라과에 마취 및 침술의사 등 의료요원 12명을 파견 지원하였으며, 동년 9월 잠비아, 자이레에도 의료요원(수미상) 파견, 1988년 8월 나이제리아에 제약회사 합작운영 기술자 4명 파견, 1986년 6월 부르키나파소에 경제고문단 3명을 파견하였으며, 나미비아에는 1989~90년간 수미상의 태권도 사범 파견을 비롯하여, 1991년 3월에도 태권도 사범 3명을 파견한 바 있고, 1990년 6월 이란의 대규모 지진피해시(사망자 5만명) 의료지원단 58명을 긴급 파견한 바 있다.(표 5) 참조

〈표 5〉 각종 기술자, 전문요원, 근로자 해외파견 실적(1978~99. 7)

분 야	인원(명)	비율	대 상 국
별 목 공	12,000	45.1%	러시아 1개국
건 설 (주택, 호텔, 공장, 도로기술자)	9,033	34.0%	쿠웨이트, 북예멘, 리비아 등 7개국
농 업 (영농, 관개, 양잠, 목축기술자)	4,133	15.5%	앙골라, 가이아나, 세네갈 등 18개국
의료, 태권도, 집단체조 지도자	838	3.1%	리비아, 이란, 나미비아 등 9개국
탄광, 광산분야	576	2.2%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몽골 등 3개국
수력발전소 분야	21	0.1%	파키스탄, 네팔, 에티오피아 등 8개국
계	26,601이상	100%	38개국 (중복국가 제외)

※ 1984년 1월 김일성은 50여 개도국에 기술자, 전문가 5,000여명 파견실적 언급
1991년 3월 북한방송은 기술자, 전문가 등 연인원 수만명 파견 보도

V. 연대별/지역별 지원 규모

북한의 연대별 대외지원 추세는 지원초기인 1970년대에 지원한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및 아세아 중동지역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적도기네, 시에라레온, 나이제리아, 세네갈, 파키스탄, 캄보디아, 시리아, 예멘, 쿠바, 몰타, 러시아 등 13개국으로서 러시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생독립국 및 후진국들이며, 특히 북한 단독수교국 또는 일부 친북한 공동수교국에 대하여는 대부분 소량의 농기계 제공과 소규모의 공구공장, 성냥 및 연필공장 등 소비재 생산용 경공업 공장건설과 수리전문가 약간명을 파견하는 등 소규모의 지원에 불과한 정도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중남미 지역에 위치한 그레나다, 페루 등 당시 일부 한국단독 수교국까지 확대하여 경제지원국이 38개국이나 증가되었으며 지원내용도 점차 확대하여, 기술 및 건설요원을 대량 파견하는 한편, 대규모 농장 및 관개공사, 수력발전소, 회관 및 주택건설 등 각종건설 공사를 지원하고, 철근, 시멘트, 비료, 식량 그리고 현금 무상지원 및 차관 제공 등 경제 지원 내용도 다양화함으로써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도 한국 단독수교국인 중동지역의 쿠웨이트, 남미의 에콰도르를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중남미, 구주지역에 위치한 남북 동시 수교국인 라오스,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튀니지, 베네수엘라, 불가리아 등 13개국에 대한 경제지원이 추가되었으며, 지원내용도 광산건설 및 채광 합작, 골재채취공장 건설지원, 대규모 주택건설공사, 유원지·도로건설 공사지원과 1980년대 이래 대규모 각종 인력지원을 병행 실시한 것으로 분석된다.(표 6) 참조

〈표 6〉 연대별 지원 추세

구 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대상국	13개국	38개국	13개국
지 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 소량 ○소규모 공구공장, 성냥·연필공장 등 경공업 건설 ○수리전문가 약간명 파견 ○러시아 별목공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건설요원 5,000여명 파견 ○대규모농장, 관개공사, 수력발전소 건설 ○회관, 주택 건설 ○철근·시멘트, 비료, 식량 ○현금무상 및 차관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채광, 골재채취, 공장 건설 ○대규모 주택, 유원지, 도로건설 ○기술 및 전문요원 파견, 병행 실시

북한이 지원한 상기 내용 중 파악이 가능한 현금무상지원과 차관 등 유상지원규모를 1980년 이후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총 지원규모는 4억 7,261만달러로서 그중 무상지원이 1억 88만달러 (21%), 유상지원이 3억 7,173만달러(79%)이며, 1980~85년간은 무상지원 4,328만달러과 유상지원 1억 6,190만달러 등 합계 2억518만달러를 지원하였으며, 1986~89년간은 무상지원 5,455만달러, 유상지원 6,728만달러 등 합계 1억 2,183만달러를 지원하였고, 1990~99년간은 무상지원 305만달러, 유상지원 1억 4,255만달러 등 합계 1억4,560만달러를 지원하였는데, 1990년대 들어서는 북한의 경제난 심화로 인해 무상지원이 급격히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연도별 유·무상 지원 규모(단위 : 만달러)

구 분	1980~85	1986~89	1990~99	계
무상지원	4,328	5,455	305	10,088
유상지원	16,190	6,728	14,255	37,173
합 계	20,518	12,183	14,560	47,261

※ 인원, 물자, 기술지원중 규모 및 금액 미상분은 지원규모에 포함하지 않음

북한의 지역별 대외지원 규모는 1980~99년간 파악된 총지원규모 4억 7,261만달러 가운데 아시아지역은 무상지원 51만달러, 유상지원 1억 4,102만달러로 합계 1억 4,153만달러이며, 중동지역은 무상지원 2,912만달러, 유상지원은 미상이고, 아프리카 지역은 무상지원 6,242만달러, 유상지원 1억 3,761만달러로 합계 2억 3만달러로서 가장 많으며, 중남미 지역과 구주지역은 무상지원 883만달러, 유상지원 9,310만달러로 합계 1억 193만달러로서 주로 아프리카 지역 및 아시아 지역 저개발국에 대한 경제지원에 치중한 것으로 평가된다.(표 8) 참조

〈표 8〉 지역별 지원 규모(단위 : 만달러)

지역	국가수	무상지원	유상지원	합계
아시아	12	51	14,102	14,153
중동	7	2,912	-	2,912
아프리카	29	6,242	13,761	20,003
중남미	11	883	9,310	10,193
구주	5			
계	64	10,088	37,173	47,261

VI. 결론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부터 국제적 지지세력 확대 및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주로 아프리카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경제지원을 실시하였으며, 1980년대 들어 대외 경제지원을 본격화하여 현재까지 64개국에 대해 각종물자, 건설공사, 기술자 파견 등 경제지원을 강화해 왔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자체의 경제난 심화로 인해 대외지원이 다소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남북한 UN동시가입을 계기로 지원대상국을 일부 친서방 국가에까지 확대하여 남북한 동시수교 및 친북화 유도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 경제지원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 지원대상국은 아프리카 지역이 29개국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아시아, 중남미 국가 순으로서 대부분 제3세계 저개발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대별로는 1970년대 13개국에서 1980년대에는 38개국이 추가되어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13개국이 추가되어 대외경제지원은 꾸준히 지속되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만으로 총 4억 7천여만달러이며, 그중 1980~85년의 5년동안 2억여달러, 1986년~89년의 5년동안 1억 2천여만달러, 1990년대에 1억 5천만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원내용은 주로 농기계와 철근 등 공사용 자재, 옥수수 등 곡물, 관개시설, 발전소, 체육관 건설 등 각종 토목공사, 산업기술요원, 노동자 파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원조 형태는 무상과 유상의 2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무상 경제원조는 현금 공여보다 김일성 농업연구소, 동상, 회관, 공연장, 체육관 등 주로 정치적 효과를 노린 과시적 상징물 건설과 소규모의 재해구조물자 및 농업·공업분야 건설 등 비교적 장기 시설물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단교 및 친북세력의 정치 자금용으로 현금을 공여한 바 있고, 지원비율은 대체적으로 상징물 39%, 농업분야 34%, 공업분야 18%, 현금 5%의 순으로 되어 있다.

유상경제원조는 발전소, 광산, 관개공사, 주택건설 등 각종 공사 및 합작과 철강, 시멘트, 비료, 동태 등 물자지원이며, 북한은 지원대가로 대부분의 대상국으로부터 원유, 광물 등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기술지원은 각 산업분야에 걸쳐 기술요원의 파견을 위주로 하여 소규모 기술자문은 무상지원하고 대규모 기술 및 인력지원은 유상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히 북한은 지원대상국에서의 체류기간중 이들을 북한의 정치적 선전요원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지원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대외적으로 경제난을 은폐하고 경제 능력 및 기술수준을 과장 선전하면서 국제적 지원향상 및 정치·경제·외교적 실리획득을 위해 자체 수요에도 부족한 물자를

정치적 출혈 원조를 실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지원대상국을 최초에는 저개발국과 분쟁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한 친중·소권에서 점차 친서방권 국가로 확대함으로써 남·북한 동시 수교 및 친북화 유도를 획책하여, 1991년 9월 남북한 동시 UN가입을 계기로 남북한 동시수교 등 다소 성과를 거두었으나, 친서방권 국가의 친북화 기도는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최근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농업분야, 발전소 건설, 광산 개발과 각종 공사에 건설 인력 및 의료 요원 파견 등 경제적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정치·외교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최근 인니와 상호무관부 개설, 이태리와의 수교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북한은 정치,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해 일부 미수교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소극적이거나 각종 건설공사 지원 및 기술자 파견과 합작투자형태의 경제지원 등 출혈원조를 계속 추진할 것이나 지원규모는 북한자체의 경제난 실태여부와 국제적 여건에 따라 가변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